

최민정, '살아있는 전설' 되다

세계쇼트트랙선수권서
女 1000m 우승에 이어
3000m 계주까지 정상 올라



최민정(왼쪽)이 11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2 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 3000m 슈퍼파이널에서 정상에 오른 뒤 2위를 차지한 김 부탱의 축하를 받고 있다.

동계 올림픽 시즌에 마음고생을 한 최민정(24·성남시청)이 통산 네번째 세계선수권 종합우승으로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 이와 함께 모든 슬alom과 눈물을 떨쳐버리는 기적의 레이스로 여자 3000m 계주까지 정상에 오르며 시즌 최종전을 해피엔딩으로 장식했다.

최민정은 11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 리사르 아레나에서 끝난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에서 여자 1000m 우승에 이어 3000m 슈퍼파이널까지 정상에 오르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최민정은 이로써 2015년 모스크바 대회, 2016년 서울 대회, 2018년 몬트리올 대회에 이어 통산 네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3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던 '전설' 전이경과 진선유를 넘어서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또 최민정은 통산 6회 우승의 안양A(중국)와 5회 우승의 실비 다이글(캐나다)에 이어 최다 정상 3위에 올랐다. 안양A와 다이글은 이미 은퇴한 선수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최민정 나이를 감안한다면 최다 종합우승도 노려볼 수 있다.

전날까지 김 부탱(캐나다)에 종합 점수에서 39-42로 뒤졌던 최민정은 여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종합우승 발판을 놔다. 최민정은 결승에서 1분27초958의 기록으로 부탱(1분28초307)을 제치고 정상에 오르며 2관왕이 됐다. 종합점수에서도 73-63으로 역전했다.

결국 종합점수 상위 8명이 다투는 3000m 슈퍼파이널에서 최민정과 부탱이 종합우승을 놓고 다투게 됐다.

최민정은 힘을 아껴두며 아홉 바퀴까지 5.6위를 달렸지만 열 바퀴째부터 가속을 시작했다. 11바퀴째에서 1위로 올라서며 레이스를 주도한 최민정은 레이스 중반 다시 힘을 아껴며 4위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22바퀴째부터 단숨

에 2등을 추월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부탱 역시 최민정에 이어 2위를 달리며 치열한 대결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민정은 노련했다. 부탱과 거리를 계속 유지하며 선두를 이어갔다. 최민정은 마지막까지 부탱에게 추월을 허용하지 않으며 5분5초641의 기록으로 부탱(5분5초734)에 앞서 정상에 올랐다. 종합점수에서도 107점을 따내며 부탱(84점)을 크게 앞섰다.

서휘민(20·고려대)도 슈퍼파이널에서 5분06초840의 기록으로 3위에 올랐지만 종합점수에서는 36점으로 산드라 벨제부르(네덜란드, 63점)를 앞서는 못해 이집게도 다음 시즌 대표팀 자동 선발권을 따내지 못했다. 심석희(25·서울시청)는 종합점수 6점으로 8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최민정은 종합우승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기적의 레이스를 펼치며 이번 대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최민정과 서휘민, 심석희 김아람(27·고양시청)이 나선 계주에서 마지막 두 바퀴를 남겨놓고도 캐나다와 네덜란드에 뒤져 우승과 거리가 먼 듯 보였다. 그러나 마지막 두 바퀴를 책임지는 최종 주자 최민정이 있었다. 최민정은 반 바퀴를 남겨놓고도 따라붙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캐나다와 네덜란드 선수가 살짝 접촉하면서 추중하는 사이 최민정이 한꺼번에 두 선수를 추월했다.

기적의 스피트를 벌인 최민정은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날을 들이밀었다. 우승을 차지하는 줄 알았던 캐나다 최종 주자 부탱은 결승선에서 최민정이 먼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한국 여자대표팀의 공식기록은 4분39초888. 캐나다(4분49초717)에 0.03초 앞섰고 네덜란드(4분09초779)에도 0.09초만 앞섰을 정도로 텅글 하나의 대역전극이었다. /뉴시스

진안 유소년 승마단, 소년체전 출전

안전증 김하음 · 용담중 이상혁 등 2명, 전북 대표로

진안군은 11일 용담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대표 이영래) 소속 선수 2명이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할 전라북도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일 장수승마장에서 열린 2022 전라북도 소년체육대회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안전증학교 김하음 선수와 용담중학교 이상혁 선수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하며 총 3명을 뽑는 승마 장애물 종목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5월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에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진안군 용담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은 2020년 6월 창단 이래 대회에 출전하여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진안군 승마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안군은 유소년 승마단과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 유소년 승마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진안군 말산업의 발전과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소년체전 출전 전북대표 선발 '진행 중'

24일까지 23개 종목단체 추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5월 28~31일까지 경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전북 대표선수 선발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탁구 종목을 시작으로 4월 24일 복싱종목까지 23개 종목단체에서 주관해 선발대회를 진행한다.

전라북도 대표 선발대회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주말에 이뤄진다. 전라북도 대표 선발대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청 담당자들은 주말에도 대회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학생선수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종목별 결승대회로 전국에서 분산 개최됐다. 전라북도 선수단은 132개교에 1,190명이 참가해 금메달 22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35개를 획득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의 전문스포츠클럽 전환과 더불어 육성종목 훈련비 지원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육성종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인성건강과 정찬 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전북 대표 선수로 어렵게 선발된 선수들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마음껏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표선수 훈련비 등 경기력 향상 지원과 학생선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기관' 선정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이후 '최초' · 체육계에선 '유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공시 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고 있다. 2021년 점검에서는 348개 공공기관 가운데 태권도진흥재단을 비롯한 35개 기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체육계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재단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개혁 활동과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의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내 41개 공시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교육과 상시 점검을 진행했고 특히 '기관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지정·관리하는 노력 등으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지적이 없는 '무벌점'을 기록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은 "재단 창립 이래 우수공시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것은 그동안 재단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전 직원이 합심해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등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체육계를 대표하는 모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ESG 등 올해부터 신설·강화되는 사회적 책임 지표 항목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과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주=전문선 기자

국기원 기술심의회 실버분과 위원 위촉

무주 실버태권도시범단원

무주군실버태권도시범단원이 지난 8일 국기원 기술심의회 실버분과 위원에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무주지역 노인인구 구상한 무주군실버태권도시범단 소속 단원으로 태권도 3~4단 소유자 14명이다.

서울 국기원에서 진행된 위촉사에서 국기원 이몽섭 원장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이들은 국기원에 실버 태권도 보급 및 진흥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무주군실버태권도시범단 총괄을 하고 있는 무주군태권도협회 이도우 회장은 "기술심의회는 국기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조직으로 우리 어르신 태권도 시범단 원들이 실버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무주군실버태권도시범단이 전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는 데 있어 선봉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신운산농협의 웰빙지향 정직한 농민의 마음 브랜드입니다.

베리웰

최고의품질, 친절한 서비스 / 선운산농협 직접 운영

선운산농협동조합

- 상임이사: 장 봉 남
- 비상임이사: 장성균, 김완식, 주찬자, 나삼주, 김종진, 김범진, 박수정, 허선하, 라종이, 김대열, 이종면, 김대진
- 비상임감사: 최형곤, 유화봉

■ 조합장: 김기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지역에서만 자란 복분자 생과에 선운산농협의 정성을 더했습니다.

■ 본점: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34 - 사 무 호 실: 0631562-9604 - 팩 스: 0631562-9601

- 하나로마트: 0631562-9602

- 영농자재판매장: 0631562-9603

- 농기계서비스센터: 0631564-9605

■ 아산지점: 아산면 녹두로 793 - 사 무 실: 562-5007

- 사 무 실(아간): 562-5126

- 팩 스: 561-0955

- 하나로마트: 562-5166

- 영농자재판매장: 564-9772

■ 공음지점: 공음면 공음길 55 - 사 무 실: 562-7888

- 팩 스: 564-6465

- 하나로마트: 562-7889

- 영농자재판매장: 562-5556

■ 웰파크 지점: 563-7255

- 팩 스: 563-7256

■ 신운사 지점: 561-3443

- 팩 스: 561-4257

■ 복분자기공사업소: 564-5008

- 팩 스: 564-5078

■ 농산물유통센터: 562-9644

- 팩 스: 562-9654

■ 선운산농협주유소: 562-9600

- 팩 스: 562-9609

1544. 1589

복분자 1번지 선운산농협

<http://www.berrywell.co.kr>